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조이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전능왕 오셔서(찬34/새10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송덕영 장로 2부/선상균 장로 3부/송석원 장로 4부/이호민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작곡 한지현)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5:13-16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26:1-25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9) 작은 금과 호롱불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두 번째 골짜기!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선한 능력으로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2022년 주제곡)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내로남불의 딜레마

Naeronambul Dilemma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교수들이 투표한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 중에 '후안무치(厚顔無恥-날이 뜨거워 부끄러움을 모른다)', '격화소양(隔靴搔癢-신발을 신고 가려운 곳을 긁는다)'를 제치고 1등으로 뽑힌 것이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였다고 합니다. 아시타비의 순 한국말이 바로 '내로남불'이며, 사실 이제 이 말은 국제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내로남불(NaeR-oNamBul)이라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고 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기록한 후 'if they do it, it's a romance if others do it, they call it an extramarital affair'이라는 설명까지 붙였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쓰였길래 한 해를 가능하는 사자성어에 등장하고, 급기야 외국 신문에까지 회자되는 국제어가 되었습니다. 로맨스와 스캔들의 차이를 두고 남한테 안 들리면 로맨스이고, 들리면 스캔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해 폭탄을 터뜨리는 러시아는 침략의 속내를 들켜 버린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내로남불은 성경에도 버젓이 나와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하면 의롭고 남이 하면 자랑한다고 하며, 내가 하면 박수 받을 일이고 남이 하면 비판할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성향 때문에 구분되었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파루쉬'에서 '바리새'라는 말이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남이 들도록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않고 더구나 이 세리보다도 낫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비교하지 않고 아니, 그들과 비교할 여유도 없이 하늘을 향해 눈도 들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 "너 희가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라 조롱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시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눅 18장) 행동을 구별되게 하는 의로움은 마음의 반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내로남불의 속내가 들켜 버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제일 혐오하는 세리들과 비교당한 것도 몹시 불쾌한데 그것도 모자라 세리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고 속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마 5:20)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역시 바리새인의 습관처럼 내가 못하면 회개하는 세리가 되고, 내가 좀 하면 의로운 바리새인이 되어 버리는 또 다른 내로남불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Among four-letter Chinese expressions that came up this year, number one voted by professors, above 'Huanmuchu'(your face is so hot that you don't realize the shame) and 'gyukhwasyang'(scratching an itch over shoe), was 'ashitabi'(I'm right, others are wrong). Korean expression for 'ashitabi' is 'naeronambul', and this word has become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reported last year that citizens were Naeronambul about devastating result of the ruling party on mayoral elections in city of Seoul and Busan. After the word in Korean, it was followed by an English explanation, 'if I do it, it's romance, if others do it, they call it an extramarital affair'. This expression 'if I do it, it's romance, if others do it, it's an extramarital affair' must have been used often enough that it even influenced four-letter Chinese expressions in the year, as well as becoming internationalized by being used in a foreign newspaper.

In the past, difference between romance and scandal was told that if it's not caught, it's romance; if it's caught, it's scandal. Bombing of Ukraine by Russia in the name of self-defense is exactly what naeronambul is. Naeronambul also appears in the Bible. They are the Pharisees. If I do it, it's righteous, if others do it, it's boasting. If I do it, I should be praised; if others do it, they should be criticized. To distinguish the tendency to insist that what I do is different than others, Hebrew word 'Pharisee' was derived from 'parouch'.

Bible records that Pharisees prayed loud so others can hear. A Pharisee and a tax collector went up to the temple to pray. Pharisee prayed, 'Thank you, Lord, that I am not an adulterer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On the contrary, the tax collector did not compare himself to the Pharisee. In fact, out of remorse, he couldn't even look up to heaven. Instead, he beat his chest, praying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At that moment, Jesus spoke crushing words that it wasn't the Pharisee, but it was the tax collector who was righteous. Having been justified, he went home. (Lu 18) Righteousness that distinguishes our actions must be reflected from our hearts. Pharisees' naeronambul of self-elevation was uncovered. They were already unpleasant enough being compared to tax collector. To be told by Jesus that they are worse than a tax collector really flipped their egos. Jesus said, unless your righteousness surpasses that of the Pharisees, you will certainly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Matt 5:20) That is our dilemma. When I don't do well, I become a repenting tax collector. If I do well, I become a righteous Pharisee. Thus, we too, like Pharisees, give excuses of yet another kind of naeronambul.



주일 설교 강해- 제9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작은 금과 호롱불

(마 5:13-16)

1. 소금은 생활 속에서 여러 기능을 합니다. 그 중 본문은 어떤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참고/ 욥 6:6, 삼하 19:35, 골 4:6, 시 119:103)

적용하기



2. 아래 구절은 소금의 어떤 기능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욥 34:3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 분별하나니

골 4:6 너희 ()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행 1:4 사도와 '()' 그들에게 분부하여... (개역개정) 예수께서 사도들과
'()'(새번역)

3. 팔복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입맛은 어떻게 변할까요?(참고/ 시 119:103, 시 34:8)

4. 빛을 많은 사람에게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역할은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15-16절)

5. 영향력의 비밀을 다음 구절을 읽고 말씀해 보십시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4: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 우리 마음에 ()

■ 적용찬양: 선한 능력으로

베델 콰이어

찬양 소리~ 웃음 소리~

저는 작년 초부터 온라인으로 베델교회 예배를 드리던 중, 선교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를 보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극적이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만나고자 대면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찬양의 기쁨을 되찾았으며 주일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찬양의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시간을 점점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찾은 예배의 기쁨은 찬양과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였고,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깨닫게 된 저의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게 된 제게,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베델 콰이어를 시작하면서 주일 찬양을 준비하는 마음에 저의 기쁨을 담기로 했습니다. 주일에 드린 찬양의 가사가 한 주 동안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어 매일 회개가 필요한 저를 새롭게 회복시켜 줍니다. 듣고 부르며 마음

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생략)"

서혜원 집사

매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큐티인(QTIN) 묵상으로 이어지고 셀모임을 통해 확인되며 이제 수요예배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으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며 이 기다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베델 콰이어의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의 은혜를 안고 연습이 있는 수요일을 기다립니다. 지휘자님을 통해 주일의 말씀을 되새기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연습하는 시간 내내 비전 채플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잘해서 웃기보다 잘못해서 웃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지휘자님은 우리에게 너무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힘을 빼고 편안한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며 "찬양곡의 가사를 목소리가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읽

어 주십니다. 그것은 찬양의 목소리를 내 의지로가 아닌, 오직 성령님께 맡기세요"라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다. 시편 63편 3-4절 말씀에 있듯이 나를 살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찌 가만히 눈물만 흘리겠습니까? 눈물이 흘러 내 입술을 적실 때,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베델 콰이어를 통해 이러한 감동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오은옥 권사



베델 한국학교 성인반

이제 들려요 한국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반(IVAN)이에요. 저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어릴때부터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육 년 전에 저는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내 부모님하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었어요. 다른 한국어 수업도 여러 번 들었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베델 한국학교 성인반을 통해 지난 일 년 동안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재미있고 훌륭한 선생님 덕분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내 가족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게 되고 한국 문화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주위 친구들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베델 한국학교 성인반 수업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알아가도록 기도할 거예요.

IVAN 선교사(한국학교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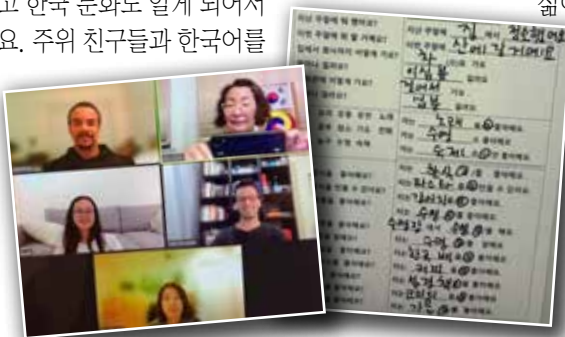
K 드라마, 영화, 노래, 춤, 패션, 음식 등 다방면으로 한류의 인기가 활화산처럼 용솟음치는 가운데 한국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의 관심과 열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아니 "한국 속의 세계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자신감의 표상으로 위풍당당 한국인의 모습이 세계 속에 그려지는

삶이 정말 감사한 시간

입니다. 한국어 자체가 국제적 소통수단의 일환으로도 활용되어 국제사회에서 갖는 위상 또한 달라져 이곳 미주에 사는 대학생 직장인

2세들의 관심도 뜨거운 요즘, 저희 베델 한국학교에서도 발 맞추어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시작된 성인반 한국어 수업이 지난 일 년 넘게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 한국 기업에 다니는 외국인, 미처 어린 시절 한국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늦깎이 대학생, 직장인 2세들이 모여서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 그리고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통한 배움의 열정으로 한국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연결되어서 그들의 가족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한 복음 전하는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그들의 한없는 한국사랑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도록 더불어 K-크리스찬의 삶을 통한 한국의 뿌리 깊은 신앙의 힘도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베델 한국 학교 성인반을 위하여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혜진 권사(한국학교 교사)



Beyond the Blue(B+B)

회복의 시간 누리기



한 번도 상상 못했던 십 대 막내아들의 암 선고 이후, 일 년 반 동안 넘치는 기도와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은 홀연히 천국으로 옮겨 갔습니다. 첫째는 동생을 잃고 힘들어하는 남은 아이들을 돌보며 슬픔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돌아보니 숨만 쉬고 살아있던 암울했던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토비가 천국에 간 지 3년이 다 되어 가던 작년 가을, 담당 전도사님의 권고로 '사별 가정 회복 세미나'에 참여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들은 천국으로 유학 중이라며 맘속으로 회피하며 지냈지만, 그제

야 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치유의 마지막 단계로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바람직하게 치유하는 방법을 배웠고 매주 따뜻한 미소와 정성 어린 음식으로 반가이 맞아주시는 봉사자들의 사랑도 느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같은 아픔을 가진 어머니들을 만나 비슷한 경험과 감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었고 함께 울고 웃던 세미나가 끝나니, 저 자신이 더 많이 위로받았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는 말씀처럼 토비의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을, 불투명한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그 날을 주 안에서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김혜영 권사

믿는 사람에게는 슬프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별 모임을 통해 슬픔과 아픔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매시간 각분야 전문가들의 말씀 영상을 들으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연로하신 부모님과 사별을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이미 사별을 겪으신 분들의 가슴 아픈 사정을 함께 나누며 열 마디 말보다 따뜻하게 손잡아주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 위로라는 것도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꺼내놓고 싶지 않은 슬픔속에 혼자 계신가요? 같은 아픔과 사정을 공감하고 나누는 '사별 가정 회복 세미나'를 통해 따스하게 넘쳐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슬픔을 넘어 회복의 길로 이제는, 나아오시길 기도합니다.

정보미 집사



소소한 일상엔 셀 식재료~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저희 셀은 미국의 작은 축소판 같습니다. 각 가정의 다양한 모습이 존중받고, 서로 각자의 모습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은혜와 그 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회로애락을 함께 합니다. 셀목자인 제가 주가 되지 않고 각 가정이 능동적인 예배드림과 참여가 이루어지며 함께 성장하는 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역을 교회내에서 선교지까지 넓히며 우리의 지경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계획을 올해 안에 실천하고자 합니다.

안성희 집사

모이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는 코람데오 셀식구 때문에 우리 가족은 첫 만남도 여행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낯선 저희를 다정하게 맞아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에 이주하고 이곳에 잘 정착하여 어느새 우리 셀식구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

누는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 말씀을 듣고 셀식구들과 은혜를 나누고 아이들은 교회를 놀이터 삼아 주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베델 교회를 만나고 우리 셀식구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코람데오 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람데오 셀식구 사랑합니다.

윤종수 집사

우리 셀과 함께 한 지난 3년을 되돌아보니 기쁜 일, 슬픈 일,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옆에서 같이 기뻐해 주고 걱정해주는 정말 가족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공



통점이 있는 듯 없는 듯 다양한 가정으로 구성된 셀이지만,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삶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셀의 모든 가정들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웃사랑을 더욱 나누고 실천해 보려는 도전 계획도 있고, 공동체안에 Go Deeper, Go Higher 하려 합니다. 코람데오 사랑합니다. 화이팅!

이주희 집사

새생명 축제

복음 샌드위치란?

복음 샌드위치란? 카카오톡을 통해 VIP들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는 도구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내용으로는 담임목사님의 인사말(아래 빵), 찬양(아채), 말씀(햄), 각 부서 초대인사(위의 빵)가 담기게 됩니다

VIP에게 이렇게 전달 됩니다.

복음 샌드위치 10분 동영상

(아래 빵) 담임목사님 인사말
(아 채) 예수아 찬양
(햄) 담임목사님 말씀
(토마토) 각 부서 초대인사
(위 빵) 초대장



링크 주소:

<https://newlifebkc.herokuapp.com>

큐티인 간증(4)

손 깨끗이 닦았나요?

저희 집 둘째 딸 그레이스는 아직 6살이 되려면 몇 달이 더 남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을 읽어주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면 판짓을 하곤 했는데, 색칠하기와 스티커가 있는 큐티인(QTin)은 아주 재미있어하며 자기 몸통보다 더 넓은 책을 꺼안고는 이리저리 읽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죄를 고백해 보라고 하면, 지난주에 아빠가 손을 닦았냐고 물어봤을 때 'yes'라고 했는데 사실은 손을 안 닦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며칠 전에는 언니를 때리고 도망갔다는 것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슬픈 얼굴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난 뒤, 함께 기도한 후에는 또 다시 해맑은 얼굴로 집안을 뛰어다닙니다. 한글로 된 새책 큐티인을 언니가 읽어 줄 때면 한글 공부도 하게 되어 참 좋습니다.

임영전 집사(학부모)

창세기 11장 4절-8절 말씀을 통하여 지나친 자부심과 욕심의 결과가 무엇

인지를 배웠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계(device)를 하나씩 갖고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계보다는 친구들에게 나의 게임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친구와 할 수 있는 게임 기계를 갖고 가서 친구와 둘이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그렇게 기계를 가지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원하던 기계를 갖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게임 실력을 자랑하려고 했던 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Joshua Lee(4학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목회지원/선교/BCA/QTm: 정승락 목사
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교육목사/전도폭발/기도: 박성권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살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영어중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충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B+B 사별 가정 회복 세미나

Beyond the Blue는 베델교회 가정회복 사역의 하나로, 이민 가정들 안에 많은 아픔의 문제 중, 사별과 이혼을 통한 상처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며 피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픔을 딛고 일어났을 때 더 아름다운 Blue를 바라볼 수 있다고 희망을 주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비록 상처 입고 아프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치유됨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교회가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치유 세미나 과정을 통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님의 크신 격려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그리하여 슬픔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정성이 담긴 저녁 식사와 다과가 준비되며,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니, 자녀와 함께 교회로 나오셔서 따스한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별과 이혼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안에서 함께 하면 마음 깊은 곳의 상처들을 보듬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현장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 곁에 Beyond the Blue가 있습니다.

- ▶ 기간: 3월 25일-6월 24일, 13주간
- ▶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 ▶ 장소: 조이 채플(행정사무실 옆)
- ▶ 문의: 정우영 장로 (949)943-7320
이란해 전도사 (949)422-8828
- ▶ 신청 방법: 교회 홈페이지 www.bkc.org
또는 본당 앞 부스
- ▶ 등록비: \$20

〈치유 세미나 과정〉

- 1) 비디오 세미나(전문가의 통찰력 있는 임상 사례 조언)
- 2) 그룹 모임(경험 나눔을 통한 생각의 정리)
- 3) 실습(추억 나눔, 기도, 말씀을 통한 회복)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3,4월)	3/27: ①부-안경수	②부-안지호	③부-여홍평	④부-최재환
	4/3: ①부-연규호	②부-오승홍	③부-유형석	④부-강수연
	4/10: ①부-윤영걸	②부-윤주원	③부-이강오	④부-김도윤
헬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3,4월)	3/26: 김종현	4/2: 김진호	4/9: 김진환	4/16: 김태원
강단꽃(3,4월)	3/20: 박세환	3/27: 선상균, 손용주, 장효준	4/3: 양석주	4/10: 선상균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전미림(한외과), 간호사-김명숙

다음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채수정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익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눈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슬기로운 예배 방역 지침

아직 코로나 팬데믹 중입니다. COVID 증상을 스스로 관찰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와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와 모임 중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생명 축제(D-28)

4월 17일 부활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VIP 작정카드엔 언제든 작성하셔서 VIP 작정함에 제출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상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새생명 축제를 위한 복음 샌드위치

복음 샌드위치는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생명축제로 초대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복음샌드위치 구성은 담임목사님의 인사말과 찬양과 말씀과 각 부서의 초대인사들 그리고 새생명축제 초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 샌드위치는 교회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VIP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본당앞 부스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면 참고)

◆ 주차 안내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전 주차장 입구는 셔틀버스 진입로(원형 로터리)가 아닌 반대편쪽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비전센터 뒤편 중국교회 주차장은 BGC 영어권 예배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베델 수요 예배 안내

주중에 드려지는 공예배로서 수요예배가 매주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말씀과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실황은 저녁 7시에 Youtube로 방영됩니다.

문의: 박재영 집사 (714)980-1653

◆ 특별 프로그램 "걸어서 베델 속으로"

새롭게 시작된 목요 프로젝트 "걸어서 베델속으로: 본격 사역체험 프로그램" 2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베델교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훈의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팀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 동안 궁금했던 사역의 자리를 새롭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아래장소에서 있습니다. 베델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 3월 31일(목) 오후 7시

장소: 유년부 예배실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송덕영 장로 (425)478-3143

◆ Beyond the Blue(B+B): Grief share (사별 가정 회복 세미나)

사랑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잃고 상실감과 슬픔의 여정을 지내는 이들을 위한 사별 세미나 모임을 갖습니다. 눈물을 닦아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귀한 은혜의 모임에 초대 합니다. (7면 참고)

기간: 3월 25일(금)-6월 24일(금), 13주간

시간/장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조이채플, *저녁식사 제공

등록비/등록 방법: \$20, 베델교회 홈페이지(www.bkc.org)

문의: 정우영 장로 (949)943-7320, 이란혜 전도사 (949)422-8828

◆ 교회학교 VIP 작정카드

2022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한 온라인을 통한 VIP 작정카드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각 부서를 통해 보내드린 링크를 통하여 VIP 작정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 교회학교 VBS 조기등록

2022 VBS가 'Zoomerang: Returning to the Value of Life'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조기등록 중에 있으니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소망부는 추후에 등록광고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VBS 기간: 영유아 6월 7일-6월 10일,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K-5 6월 14일-6월 18일 오후 1시-오후 6시 30분

조기등록 기간: 3월 13일-3월 27일

조기등록 금액: 영유아 \$50, K-5 \$60

일반등록 기간: 3월 28일-4월 10일

일반등록 금액: 영유아 \$65, K-5 \$75

◆ 도로 통제 안내

3월 27일(주일) 마라톤이 있는 관계로 Irvine Valley College 주변 도로가 통제됩니다. 405 Frwy에서 오시는 분들은 Jeffrey/University를 이용하실 수 없으니 Culve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페 카드 재활용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 사용한 베델 카페 기프트 카드를 카페로 가져오시면 드립커피 한잔을 무료로 드립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정희 성도님 (김혜준 집사의 모친/ 김정민 집사의 장모)께서 3월 14일(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모든 장례를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 故 이정희 성도님 (정영택 집사의 모친/ 정은자 권사의 시모)께서 3월 16일(수)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Little Gold and an Oil Lamp (Matthew 5:13-16)

1. Does salt have many functions in our lives? What type of functions is the scripture talking about?
(V 13, Ref/ Job 6:6, 2 Samuel 19:35, Col 4:6, Psalm 119:103)

Apply to Life



2. What are the functions of salt the verses below metaphorically refer to?

Job 34:3 For the ear tests () as the tongue tastes food.

Col 4:6 Let your () be always full of grace, seasoned with salt, so that you may know how to answer everyone.

Acts 1:4 On one occasion, while he was () them, he gave them this command:...(NIV)

3. How will our taste be changed if we receive the Beatitudes? (Ref/ Psalm 119:103, Psalm 34:8)

4. You can say that the role of shining the light on many people to glorify God requires a lot of hard work and sacrifice. What does the Scripture say in one word? (Vv15-16)

5.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share the secret of influence.

1 Peter 2:9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God's special possession,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

2 Cor 4:6 For God, who said, "Let light shine out of darkness," made his light () in our hearts to give us the () of the knowledge of God's glory displayed in the face of Christ.